

금융을 통해 고객의 행복과 미래를 만들어나가다



KB금융그룹과 교육부 공동 지원으로 지난 3월 개원한 서울 성북구 장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맨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맨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이 아이들과 함께 개원을 축하하고 있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지난 9월 14일 미국 다우존스가 발표한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DJSI)에서 4년 연속 월드지수에 편입됐다.

DJSI는 미국 S&P 다우존스와 지속가능경영 평가 투자기관인 스위스 로베코샘이 공동 개발한 지속가능경영 지수다. 글로벌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천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 환경 경영 등의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해 평가한다.

올해 DJSI 월드 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천526개 글로벌 기업 중 12.6%인 318개, 국내 기업 중에서는 20개가 편입됐다. 은행 산업 부문에서는뱅크오브아메리카, BNP파리바 등을 비롯한 전 세계 25개 금융회사가 편입됐다.

KB금융그룹은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고객 중심 경영'을 추진하고, 그룹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목표로 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그룹은 UN에서 제정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준용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확산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출산으로 인한 육아 문제, 교육비,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손잡고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유치원 신설과 증설에 매년 150억원씩 총 7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KB금융그룹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안정된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신용 관리가 미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지원 부분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맺었다. 임차보증금 일부에 대해 대출금리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이 상품은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 청소년의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매년 5월과 12월을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집중 기간'으로 운영함으로써 전 계열사 임직원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지난 1년간 펼친 총 봉사활동 시간은 23만6천여 시간에 달한다. ♣

